

#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Navigation in Law Library Websites

김 성 희\*\* · 이 용 미\*\*\*

Seong-Hee Kim · Young-Mi Lee

### 차 례

- |                  |                    |
|------------------|--------------------|
| 1. 서론            | 4.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개선방안 |
| 2.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구조 | 5. 결론              |
| 3.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분석 | • 참고문헌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11개·국의 5개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역, 지역,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역 내비게이션은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야 하며,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비게이션의 Quick Link는 스크롤바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가급적 적은 수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비게이션의 사이트맵과 사이트색인은 웹사이트의 콘텐츠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제공해야 하며, 누락된 링크가 없어야 하며 제공내용이 충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키 워 드

내비게이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전역, 지역, 문맥, 지원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 seonghee@cau.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 ym-coramdeo@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7년 5월 24일

• 게재확정일자 : 2007년 6월 11일

##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web site navigation of law school libraries in terms of global, local, context, support navigation. The recommendations for good web site design were as follows. First, global navigation should provide the consistent navigation and be able to access to the important site and function. Second, quick links of local navigation need to provide the movement of scroll bar. The number of menu and type of link in context navigation should provide the least number. Finally, the site map and index should provide with qualified contents and minimal errors.

## KEYWORDS

web site, navigation, law library, global, local, context, support

## 1. 서론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웹사이트 또한 증가되고 있다. 웹은 기본적으로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웹 정보의 증가는 웹의 구조를 복잡하게 한다. 이로 인해 웹사이트를 향해하는 이용자들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와 웹 구조의 복잡성으로 정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어 웹사이트를 방문한 목적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웹을 경유하여 수많은 분량의 데이터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이용자

들에게 어떻게 검색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조작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보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Fleming 2000).

좋은 웹사이트란 정보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를 향해하는 이용자의 목적과 행동을 조직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웹사이트는 잘 조직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향해하는 이용자의 목적과 행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동안 법률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정보 객체를 손쉽게 이동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보구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춘 법률사이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기관

사이트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는 다른 법률사  
이트에 비해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이 적음에  
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내  
비게이션의 디자인 측면과 사용성 평가 측면  
의 연구가 있었으며,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의 구조적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 연구들은 내비게이션의 디자인 측  
면과 사용성 평가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  
지만, 내비게이션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적  
었다. 디자인 측면의 연구에서 내비게이션 구  
조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분석한 연구도 있었  
으나, 전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분석하고 구  
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조상래 2001; 노경미 2004; 임혜원  
2004). 국외 선행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보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국외 선행연구 또한 내비게이  
션 시스템의 전체 구조의 분석보다는 내비게  
이션 구조의 일부분을 연구한 결과들이 많았다  
(Stover & Zink 1996; Cohen & Still 1999;  
Bao 2000; Stewart 2004). 이상의 선행연구  
들을 살펴본 결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  
분을 연구한 결과들은 있었으나, 구조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 웹사이트인 법학도서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

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법학도서관 웹사  
이트 이용을 제공하고, 도서관에게 서비스 증  
진과 효율적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계 시 도움  
을 주고자 한다.

## 2.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구조

웹사이트는 웹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경  
로를 거쳐서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찾고, 읽는  
방문자의 행동을 통해 원하는 목표(정보)를 찾  
아가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시  
스템은 크게 전역 내비게이션, 지역 내비게이  
션, 문맥 내비게이션, 지원 내비게이션으로 구  
성된다(Rosenfeld & Morvill 2002).

### 2.1 전역 내비게이션(Global Navigation)

전역 내비게이션은 포괄적으로 사이트 전  
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이트의 어  
느 화면에서든지 수직, 수평의 이동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이미 계층화된 정보구조를 보완  
한다. 사이트 전체에 걸쳐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메뉴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전역 내비게이션의  
구성요소는 3가지로 다음과 같다.

- 1) 전체 사이트 상단에 항상 고정적으로 배

치되는 1차 내비게이션(primary navigation)

- 2) 페이지 오른쪽 최상단에 배치되면서 고객지원, 사이트 이용안내,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메일 확인 등의 서비스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
- 3) 전체 사이트 하단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하단 메뉴군(bottom area)

## 2.2 지역 내비게이션(Local Navigation)

지역 내비게이션은 사이트의 일부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 페이지 내의 링크를 규정한다. 사이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보완하기 위하여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들을 메뉴화한 것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잡한 사이트에서는 전역 내비게이션을 하나 이상의 지역 내비게이션들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내비게이션을 디자인할 때에는 각각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비게이션의 구성요소는 2가지로 다음과 같다.

- 1) 각 섹션마다 고유의 작업을 반영한 2차 내비게이션(secondary navigation)
- 2) 섹션의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섹션 전체에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공

통 메뉴 영역(feature selection)

## 2.3 문맥 내비게이션 (Contextual Navigation)

문맥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이트의 정보 구조에 따른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 외에 부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많이 사용되며, 'embedded link'가 전형적인 예이다.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관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사용자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중간에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embedded link일 경우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맥 내비게이션은 사이트의 기본적인 계층 구조의 외부에 있으면서 사이트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일반 내비게이션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을 보완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강희정 2000).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통합된 내비게이션 이후에 문맥 내비게이션에 대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맥 내비게이션은 14가지의 링크 유형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문장 속에서 링크시키는 방식의 내비게

- 이선(Ad Hoc link)
- 2) 메인 페이지나 섹션 첫 페이지에서 콘텐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방식의 내비게이션(deeper link)
- 3)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가 한 화면에 공존하여 가치 사슬적이며, 직관적인 인지력이 강화된 유기적 구조의 내비게이션 형태(double chain link)
- 4) 동일한 레벨의 메뉴 사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의 내비게이션 형태(drop-down link)
- 5) 페이지 내에서 링크시키는 방식의 내비게이션(embedded link)
- 6) 프레임 안에 링크를 사용하는 것(framing link).
- 7) 특정 그룹 내 동일한 레벨의 메뉴나 그룹 간의 순차적인 이동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형태(hyperlink)
- 8) 독자적인 사이트(sub-site)를 새로운 창으로 링크시키는 방식의 내비게이션(remote link)
- 9)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시키는 것(simple link).
- 10) 독립된 창에서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보유한 유형의 내비게이션(stand alone navigation)
- 11) 새로운 윈도 창으로 뜨는 유형의 내비게이션(stand alone selection)
- 12)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탭과 하위메뉴로 구성하여 콘텐츠의 정밀한 접근이 용이

한 구조의 내비게이션 형태

(tab chain link)

- 13) 콘텐츠 영역에서 활용하는 내비게이션(tertiary navigation)
- 14)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링크(dead link)

## 24 지원 내비게이션

### (Supplement Navigation)

지원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이트의 정보 구조 내에서의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외에 이를 보조하여 사용자의 정보탐색을 돕는 것을 의미하며, 내비게이션 보조도구라고도 한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먼저 사이트의 전체적인 내용과 정보 구조를 볼 수 있고, 원하는 항목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가능한 유형을 들 수 있으며 목차, 사이트맵, 색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완 내비게이션의 구성요소는 6가지로 다음과 같다.

- 1) 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 투어(site tour)
- 2) 사이트 전체를 조망 및 브라우징할 수 있는 사이트맵(sitemap)
- 3) 사이트 운용 등에 대한 청구 역할인 도움말(Help, FAQ)
- 4)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피드백(Feedback, Q&A)
- 5) 회원 관련된 서비스·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비스(membership, profile relation)

### 3.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분석기준에 대한 요소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분석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분석대상으로는 법과대학 내에 설치된 법학도서관 중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된 국내 법학도서관은 전체 97개 법과대학 중에서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산대, 한동대, 한양대 등 11개 웹사이트이다. 국외 법학도서관 선정기준은 일차적으로 2007 Law School Ranking 100 에 올라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Law School 중에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Law School Library 인 Yale, Chicago, Michigan, Northwestern, Georgetown 5개 웹사이트를 선정하였다. 평가는 법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법학전문사서에 의해 국내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역, 로컬,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으로 분석하였다.

### 3.1 전역 내비게이션(Global Navigation)

전역 내비게이션 분석항목은 모두 6개로 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전역 내비게이션 제공여부(문항 1)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국내 11개, 국외 5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전역 내비게이션의 구성요소는 1차 내비게이션(primary navigation),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 하단 메뉴군(bottom area) 등이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국내외 법학도서관 82%가 1차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중앙(중), 상단(횡)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91%가 수평 톨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내비게이션의 유형은 91%가 롤오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평균 6개의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의 위치(중·횡), 방향, 유형, 메뉴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은 국내 11개(91%), 국외 3개 법학도서관(40%)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법학도서관의 접속 메뉴군은 일반적으로 중앙(중)·상단(횡)에 위치한 1차 내비게이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메뉴군의 방향은 수평 톨바를 사용하고

〈표 1〉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분석항목

내비게이션 영역	항	목
전역	전역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1) (위치(종·횡), 방향, 유형, 메뉴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2)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가?(문항 3)	
	현재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법학도서관 명칭)(문항 4)	
	홈페이지(홈버튼, 로고)로 이동이 가능한가?(문항 5)	
	사이트의 상위기관 홈페이지가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는가?(문항 6)	
지역	지역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7) (위치, 방향, 유형, 메뉴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를 제공하는가?(문항 8)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의 배치는 적당한가?(문항 9)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는 이동이 가능한가?(문항10)	
문맥	문맥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11) (메뉴 수, 링크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같은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볼 때 '다음', '이전' 버튼이 존재하는가?(문항 12)	
	새창(Additional Browser Window)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가?(문항 13)	
	관련사이트 링크는 제공하는가?(문항 14)	
지원	사이트맵	사이트맵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15)
		사이트맵에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16)
		사이트맵에 잘못된 링크나 누락된 링크 정보는 없는가?(문항 17)
		사이트맵의 내용이 충실한가?(문항 18)
	색인	사이트 색인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19)
		사이트 색인에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20)
		사이트 색인에 잘못된 링크나 누락된 링크 정보는 없는가?(문항 21)
		사이트 색인의 내용이 충실한가?(문항 22)
	가이드	사이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23)
		도서관 이용안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24)
		업무별 담당자 정보가 충실히 명시되어 있는가?(문항 25)
	검색	자료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26)
		서치(search) 엔진 등을 통해 웹페이지가 공개되고 있는가?(문항 27)
		다양한 검색옵션을 지원하고 있는가?(문항 28)
		검색관련 도움말이 설명되어 있는가?(문항 29)
	기타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30)
		FAQ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31)
		피드백, Q&A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32)
		개인·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문항 33)

〈표 2〉 전역 내비게이션 분석결과

(단위 : 개, %)

하위항목	범주( 표 1에서의 문항번호)	국 내	국 외
전역 내비게이션 (global navigation)	전역 내비게이션 제공(문항 1)	11(100)	5(100)
	일관된 내비게이션제공(문항 2)	9(81.8)	5(100)
	핵심지역과 가능접근(문항 3)	10(91)	4(80)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제공(문항 4)	11(100)	5(100)
	홈페이지(홈버튼)로 이동가능(문항 5)	7(64)	4(80)
	상위기관 홈페이지 적정위치(문항 6)	4.5(41)	3(60)

〈표 3〉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1차 내비게이션

(단위 : 평균,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1차 내비게이션 (primary navigation)	위치(중)	중앙(81.8)	중앙(60)
	위치(횡)	상단(81.8)	상단(80)
	방향	수평(90.9)	수평(80)
	유형	롤오버(90.9)	롤오버(80)
	메뉴 수	6	6

〈표 4〉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접속 메뉴군

(단위 :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접속 메뉴군 (direct selection)	위치(중)	우측(90.9)	우측(40)
	위치(횡)	최상단(72.7)	최상단(60)
	방향	수평(72.7)	수평(60)
	유형	링크(90.9)	링크(60)
	메뉴 수	5	3
	메뉴구성	사이트맵(81.8) 홈(63.6) 상위기관(54.5) 로그인(54.5) 기타	사이트맵(0) 홈(20) 상위기관(20) 로그인(0) 기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의 유형은 국내의 경우 90.9%가 링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외는 60%로 역시 링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의 메뉴의 수는 평균 5개로 나타났으며, 국외 법학도서관의 메뉴의 수는 평균 3개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의 메뉴의 구성은 사이트맵이 81.8%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홈버튼이 63.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상위기관과 로그인 서비스의 링크는 54.5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상위기관은 대학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54.5%,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45.5%, 분관도서관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14.3%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법학도서관의 상위기관 중 가장 중요한 법과대

학으로의 링크는 7.1%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 메뉴로는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웹사이트 운용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 사용자인증 서비스 등이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의 접속 메뉴군의 메뉴의 구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제공되는 국내와는 달리 도서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이트 검색이 가능한 site search, 사이트 운용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contact us, 도서관이용시간을 제공하는 hour, 담당 직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명시한 staff directory, 사이트를 알파벳순으로 열거한 site index, 법학도서관 OPAC을 포함한 library catalog 등이 있었다. 하단 메뉴군(bottom area)의 위치, 방향, 유형, 메뉴 수를 분석해 보면 <표 5>에

<표 5>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하단 메뉴군

(단위 :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하단 메뉴군 (bottom area)	위치(중)	중앙(100)	중앙(80)
	위치(횡)	최하단(100)	최하단(100)
	방향	수평(100)	수평(100)
	유형	텍스트(100) 드롭다운(27.3) 링크(18.2)	텍스트(100) 링크(100)
	메뉴 수	2	2
	메뉴구성	copyrights(100) 주소·연락처(81.8) 사이트바로가기(27.3) 기타	copyrights(80) 주소·연락처(80) disclaimer(40) privacy statement(40) 기타

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의 국내 법학도서관 모두 하단 메뉴군이 존재했으며, 국외는 80%가 존재했다. 하단 메뉴군의 위치는 분석결과 국내외 모두 중앙(중), 최하단(횡)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역 내비게이션의 하단 메뉴군(bottom area)의 방향은 분석결과 국내외 모두 수평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국내외 법학도서관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의 경우는 텍스트가 100%, 드롭다운이 27.3%, 링크가 18.2%로 3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5개의 법학도서관 모두 텍스트와 링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하단 메뉴군의 유형은 텍스트와 링크, 드롭다운이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 내비게이션의 하단 메뉴군(bottom area)의 메뉴 수는 국내외 법학도서관 모두 2개로 나타났으나, 메뉴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는 하단 메뉴군에 copyrights와 주소 및 연락처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며, 몇몇 도서관은 사이트 바로 가기를 드롭다운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 학생증이나 도서관이용 안내 VTR 서비스를 링크시킨 도서관도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하단 메뉴군에 copyrights와 주소 및 연락처를 텍스트와 링크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이트의 책임제한(disclaimer)이나 프라이버시 성명서(privacy statements)를 링크시켜 제공하고 있었다. 책임제한이란 사이트상의 자료 및 정보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함을 알리는 것으로, 법학

도서관에서는 관련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에서 불가피하게 인용하거나 사용된 특정 상품, 기업 혹은 단체에 대한 권유 및 선전의 목적이 없으며, 정보제공에 기초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시 성명서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법학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성명서를 말한다. 법학도서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에의 권익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위법 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일관된 내비게이션의 제공(문항 2)은 국내 81.8%, 국외 100%, 전체 91%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외와는 달리, 국내 18.2%의 법학도서관은 내비게이션에 일관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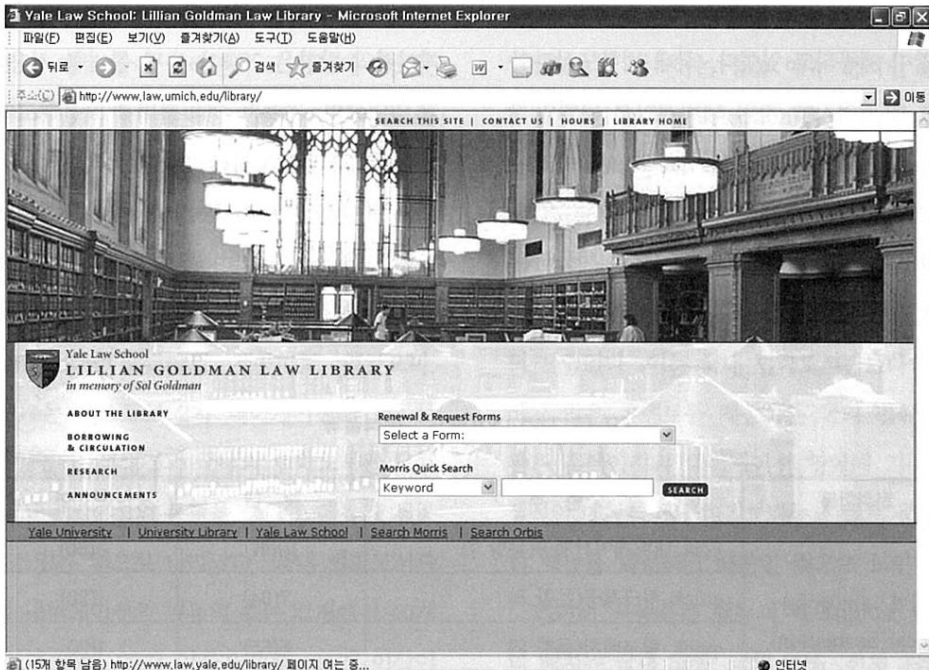
셋째 핵심지역과 기능 바로 접근 가능여부(문항 3)에 관해서는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하는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과 하단 메뉴군(bottom area)은 국내 91%, 국외 80%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속 메뉴군 영역에 모체기관인 대학, 법과대학, 중앙도서관 웹사이트나 로그인, 사이트맵, e-mail 서비스 등을 텍스트나 이미지로 링크시켜 제

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외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접속 메뉴군 영역에 국내와 같은 서비스를 링크시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으나, 접속 메뉴군 자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도서관도 있었다. 또한 로그인 서비스는 국외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넷째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제공 여부(문항 4)에 관해서는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현재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의 모두 100%로, 모든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 왼쪽(중), 상단(횡)에 모체기관인 대학로고와 도서관 국문·영문명칭을 함께 제공

하고 있었으며, 페이지 모든 영역에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었다. 다섯째 이용 중이던 페이지에서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문항 5) 도서관명칭을 클릭했을 때, 국외의 경우(80%)는 대부분 법학도서관 홈페이지로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64%)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국내 법학도서관의 경우 'Home'이나 '홈으로'라는 서비스를 페이지 우측(중), 최상단(횡)에 접속메뉴군(direct selection)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로 되돌아가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여섯째 상위기관 홈페이지 제공여부(문항 6)에 대해서는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웹사이트의 상위기관 홈페이지의 제공은 국내



〈그림 1〉 Yale Law School Library 홈페이지

41%, 국외 60%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상위기관인 대학,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대부분의 법학도서관에서 접속 메뉴군(direct selection)에서 제공되고 있었으나, 법과대학 홈페이지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 상위기관인 대학, 중앙도서관, 법과대학 홈페이지가 제공되고 있으나, 1차 내비게이션(primary navigation) 영역이나 하단 메뉴군(bottom area)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었다(예제 <그림 1>).

### 3.2 지역 내비게이션(Local Navigation)

지역 내비게이션(local navigation)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91%, 국외 60%로 국외보다 국내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국내 법학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역 내비게이션 영역인 2차 내비게이션(secondary navigation)이나 퀵 링크(quick link)같은 공통 메뉴 영역(feature navigation)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국외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지역 내비게

이션의 2차 내비게이션을 홈페이지가 아닌 다음 페이지부터 제공하거나, 기능 중심적인 공통 메뉴 영역(feature navigation)을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각 섹션마다 고유 작업을 반영한 내비게이션 영역인 2차 내비게이션(secondary navigation)의 위치, 방향, 유형, 메뉴 수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11개의 국내 법학도서관 중에서 90.9%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국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중 60%의 웹사이트에 2차 내비게이션이 존재했다. 2차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66.7%는 메뉴하단에 존재했으며, 33.3%는 메뉴우측에 존재했다. 분석결과 2차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1차 내비게이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 2차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70%가 수평 톨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30%는 수직 톨바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 2차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66.7%가 수직 톨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33.3%는 수평 톨바를 사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2차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국내 법학도

<표 6> 지역 내비게이션 분석결과

(단위 : 개,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지역 내비게이션 (local navigation)	지역 내비게이션제공(문항 7)	10(91)	3(60)
	quick 링크제공(문항 8)	7(64)	1(20)
	quick 링크배치(문항 9)	6(55)	1(20)
	quick 링크이동(문항 10)	2(18)	0

〈표 7〉 지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2차 내비게이션

(단위 : 평균,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2차 내비게이션 (secondary navigation)	위치	메뉴하단(100)	메뉴하단(66.7)
	방향	수평(70)	수직(66.7)
	유형	풀다운(81.8)	풀다운(66.7)
	메뉴 수	27	24

서관은 수평 톨바를, 국외 법학도서관은 수직 톨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 2차 내비게이션의 유형은 9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81.8%)에서 풀다운 메뉴(pull-down menu)를 사용하고 있었다. 풀다운 메뉴는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 하위 메뉴가 선택한 메뉴의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메뉴 구성 방식의 하나이다. 평소에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나 작업 도중 필요한 메뉴 바를 누르면 메뉴 창이 열리면서 그 항목에 따르는 하위 메뉴 바가 나타나는 형식을 이루며, 보통 단축 메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2개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18.2%)는 2차 내비게이션의 유형을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중 66.7%는 풀다운 메뉴(pull-down menu)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33.3%는 텍스트로 2차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국내외 법학도서관 모두 2차 내비게이션의 유형을 풀다운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 2차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21개에서 40개 사이가 60%, 20개 이하가 30%, 40개 이상이 10%로 나타났으며, 평균 27개의 메뉴가 2차

내비게이션 메뉴의 수에 사용하고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 메뉴의 수는 평균 24개의 메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국내외 법학도서관 2차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평균 26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비게이션 영역 중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의 제공은 국내 64%, 국외 20%, 전체 42%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섹션의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공통 메뉴 영역인 공통 메뉴 영역(feature selection)은 주로 킷 링크(quick link)나 킷 메뉴(quick menu) 등으로 제공된다. 국내의 경우, 기능 중심적인 공통 메뉴 영역을 적용하는 경우가 과반수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국외의 경우는 매우 낮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 법학도서관보다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외 법학도서관은 홈페이지의 내비게이션 영역에 기능 중심적인 메뉴를 제공하기보다는 콘텐츠 중심적인 메뉴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의 배치는 국내 55%, 국외 20%, 전체 38%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도서관

이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의 좌측(중), 상단(횡)에 구성되고 있었으나, 국외의 경우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우측(중), 상단(횡)에 구성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의 이동 가능성은 국내 18%, 국외 0%, 전체 9%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 3.3 문맥 내비게이션 (Contextual Navigation)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은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국내 90%, 국

외 80%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내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평균 13개로 나타났으며, 링크의 유형은 13개의 유형 중 9개의 링크 유형을 고르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내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 중 대다수가 상위 5개의 링크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된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표 9>와 같다.

국내 법학도서관 문맥 내비게이션의 링크 유형은 독자적인 사이트를 새로운 창으로 링크시키는 방식인 원격 링크(remote link)가 총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콘텐츠 영역에서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영역인 3차 내비게이션(tertiary

<표 8> 문맥 내비게이션 분석결과

(단위 : 개, %)

하위항목	범 주	국 내	국 외
문맥 내비게이션 (contextual navigation)	문맥 내비게이션 제공(문항 11)	10(91)	4(80)
	다음, 이전버튼 존재 여부(문항 12)	7(64)	0(0)
	새로운 창 사용자제(문항 13)	11(90)	1(20)
	관련사이트 링크제공(문항 14)	8(73)	3(60)

<표 9>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의 상위 5개 링크 유형

(단위 : 개수, %)

항목	국내(링크 유형)	개수	국외(링크 유형)	개수
평균		13		5
상위 5개 링크 유형	remote link	42	tertiary navigation	15
	tertiary navigation	21	deeper link	5
	deeper link	16	drop-down Link	3
	embedded link	11	embedded link	2
	stand alone selection	10	stand alone selection	2

navigation)이 21개로 두 번째, 홈페이지나 섹션 첫 페이지에서 콘텐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deeper link)가 16개로 세 번째로 높았다. 네 번째로는 총 11개의 메뉴에서 구성된 페이지 내에서 링크시키는 방식인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10개의 메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윈도우 창으로 뜨는 유형(stand alone selection)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평균 5개로 나타났으며, 링크의 유형은 13개의 유형 중 5개의 링크 유형만을 가지고 있었다. 국외 법학도서관 문맥 내비게이션의 링크 유형은 콘텐츠 영역에서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영역인 3차 내비게이션(tertiary navigation)이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나 섹션 첫 페이지에서 콘텐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인(deeper link)이 5개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세 번째로는 총 3개의 메뉴에서 구성된 동일한 레벨의 메뉴 사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의 내비게이션 형태(drop-down Link)이며, 총 2개의 메뉴에서 구성된 페이지 내에서 링크시키는 유형(embedded link)과 새로운 윈도우 창으로 뜨는 유형(stand alone selection)을 네 번째로 사용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국내외 법학도서관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국내 법학도서관은 국외 법학도서관에 비해서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의 개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는 국내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는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외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는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에 가급적 적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하므로 홈페이지에 비슷한 콘텐츠 범주를 묶어 텍스트 레이블 제공하고, 다음 단계에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볼 때, '다음', '이전' 버튼의 제공 여부는 국내 64%, 국외 0%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은 스크롤바를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페이지를 나누어 '이전', '다음' 버튼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 페이지 전체를 한 페이지로 제공하고 있어 스크롤바를 움직이거나 페이지 중앙(중), 상단(황)에 알파벳순 색인을 두어 제공하고 있었다.

새창(additional browser window) 사용의 자체 여부는 국내 95%, 국외 10%로 국내의 경우 과도한 새창의 사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사이트를 새창으로 뜨게 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외의 경우는 새창으로 뜨게 하는 부분을 가급적 줄여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고정된 전역, 지역 내비게이션 내에 문맥 내비게이션 영역을 활용하고 있었다.

관련사이트 링크의 제공 여부는 국내 73%, 국외 60%, 전체 67%로 과반수가 넘는 국내외

법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관련사이트 링크를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외의 경우 관련사이트의 범주를 묶어 홈페이지에는 최상의 범주만 제시하고 다음 페이지부터 더 깊은 관련사이트를 링크시키고 있었다. 이는 국외 법학도서관의 콘텐츠의 양과 관련사이트의 양이 방대하므로 홈페이지상에는 최상의 범주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3.4 지원 내비게이션 (Supplement Navigation)

지원 내비게이션의 분석항목은 사이트맵, 색인, 가이드, 검색, 기타 등 총 5개이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범주의 ( ) 부분은 <표 1>에서의 문항번호이다.

<표 10>에 따르면 지원 내비게이션 영역의 사이트맵은 국내 73%, 국외 40%로 나타났으

<표 10> 지원 내비게이션 분석결과

(단위 : 개, %)

하위항목	범 주	국내	국외
지원 내비게이션 (supplement navigation)	지원 내비게이션 제공(문항 15)	9(100)	5(100)
	사이트맵 제공(문항 16)	8(73)	2(40)
	사이트맵 링크제공(문항 17)	8(73)	2(40)
	사이트맵에 잘못된 링크(문항 18)	8(73)	2(40)
	사이트맵의 내용의 충실도(문항 19)	8(73)	2(40)
	사이트 색인 제공(문항 20)	0(0)	2(40)
	사이트 색인 링크제공(문항 21)	0(0)	2(40)
	사이트 색인에 잘못된 링크(문항 22)	0(0)	2(40)
	사이트 색인의 충실도(문항 23)	0(0)	2(40)
	사이트 가이드제공(문항 24)	2(18)	4(80)
	도서관 이용안내제공(문항 25)	10(91)	4(80)
	담당자 정보제공(문항 26)	3(27)	5(100)
	자료검색기능(문항 27)	9(82)	3(60)
	검색엔진에 웹페이지 공개(문항 28)	0(0)	5(100)
	다양한 검색옵션제공(문항 29)	6(55)	3(60)
	도움말제공(문항 30)	11(100)	5(100)
	FAQ 제공(문항 31)	27	40
피드백, Q & A 제공(문항 32)	64	100	
개인 회원서비스 제공(문항 33)	82	0	



며, 국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사이트 색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콘텐츠의 양의 방대하므로 웹사이트의 메뉴를 제공하는 사이트맵보다 메뉴와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색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맵이 제공된 국내외 법학도서관은 사이트맵에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메뉴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잘못된 링크나 누락된 링크가 없어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트맵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1차 내비게이션(primary navigation)과 지역 내비게이션의 2차 내비게이션(secondary navigation)까지 제공되고 있었으며, 국외의 경우 더 깊은 문맥 내비게이션의 3차 내비게이션(tertiary navigation)까지 제공되는 법학도서관도 있었다.

전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사이트 색인은 국내 0%, 국외 40%로 나타나며, 국내의 경우 사이트 색인을 제공하는 법학도서관은 전혀 없었다. 이는 국외 법학도서관보다 비교적 콘텐츠의 양이 적은 국내 도서관이 메뉴와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색인보다 사이트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 법학도서관의 경우, 사이트 색인과 사이트맵을 혼용하여 제공하는 법학도서관도 있었다.

사이트 색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외 법학도서관은 색인에 링크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메뉴와 콘텐츠에 직접 접

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이트 색인에 잘못된 링크나 누락된 링크 정보가 없어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트 색인의 내용은 국외 법학도서관 전체 메뉴와 콘텐츠를 알파벳순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색인으로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사이트 색인 페이지에 검색영역을 두어 이용자에게 정보 취득 방법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지역 내비게이션 영역의 사이트 가이드는 국내 18%, 국외 80%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사이트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트 가이드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사이트 가이드보다는 물리적인 법학도서관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분석 11의 결과 도서관 이용안내를 자세하고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보면, 국내 91%, 국외 80%로 국내의 경우 사이트 가이드보다 물리적 법학도서관 이용안내를 더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별 담당자의 정보 제공의 충실도는 국내 27%, 국외 100%로 국내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외의 경우, 업무별 담당자 리스트, e-mail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학도서관의 상위기관인 법과대학의 행정업무 담당자까지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또한 업무별 담당자를 담당 업무순, 알파벳순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

지원 내비게이션 영역의 검색 내비게이션은 국내 82%, 국외 60%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검색 내비게이션을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검색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외의 경우는 검색 내비게이션을 법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트 검색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도서검색과 사이트검색을 모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사이트검색은 국내 0%, 국외 100%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국내의 경우 사이트검색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는 반면, 국외는 모두 사이트검색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계시 사이트검색을 통해 웹사이트의 정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영역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 내비게이션 영역의 검색 내비게이션(searching navigation)은 분석결과 사이트검색과 도서검색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도서검색 위치는 좌측(중), 중앙(황)이나 우측(중), 중앙(황)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사이트검색 위치는 우측(중), 상단(황)에 위치하고 있었다.

분석결과 검색 내비게이션의 검색옵션의 유형은 도서검색은 드롭다운 메뉴로, 사이트검색은 검색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분석결과 검색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는 5개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대표레이블은 국내는 서명으로, 국외 법학도서관은 키워드로 제공되고 있었다.

지원 내비게이션의 도움말은 국내 100%,

국외 100%의 비율로 국내외 법학도서관 모두 제공되고 있었으나, FAQ는 국내 27%, 국외 40%의 비율로 제공되고 있었다. 도움말과 FAQ는 사이트 운용 등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용자가 사이트 어느 위치에서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FAQ의 경우 국내외 비율이 도움말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도움말과 FAQ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의 경우 주로 텍스트로 제공되며, FAQ의 경우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상세히 제공한다. 따라서 도움말과 비슷한 내용이 제공되더라도 이용자가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FAQ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드백은 국내 64%, 국외 10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국내의 경우보다 국외의 경우 피드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드백은 운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문의가 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피드백이 잘되는 웹사이트에는 이용자가 재방문하게 되며, 웹사이트나 도서관 이용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표현하게 되어, 더 나아가서는 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된다.

개인서비스는 국내 82%, 국외0%의 비율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는 주로 'Log-in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서비스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인서비스를 다음 페이지에 적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 영역에 접근할 경우 'Log-in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용자가 홈페이지상의 'Log-in 서비스'를 접근한 후 모든 페이지를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도록 홈페이지상에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선방안

지금까지 조사한 내비게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운영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요소들을 전역, 지역,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 내비게이션 분석결과 전역 내비게이션은 국내외 법학도서관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전역 내비게이션이 일관성없게 제공되었으며,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하는 것은 국내 법학도서관이 국외 법학도서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는 국내외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홈페이지(홈버튼, 로고)로 이동가능여부는 국내의 경우 홈버튼을 따로 제공하지만, 국외의 경우는 법학도서관 로고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게 두

었다. 웹사이트의 상위기관 홈페이지는 국내외 모두 눈에 띄는 곳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상위기관인 대학, 법과대학, 중앙도서관 모두를 제공하는 국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는 대학과 중앙도서관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역 내비게이션은 일관된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야하며, 핵심지역과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위치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홈버튼, 로고)로 이동이 쉬워야한다. 웹사이트의 상위기관 홈페이지는 대학, 법과대학, 중앙도서관 모두 제공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 내비게이션은 국내의 경우가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는 국내의 경우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나 메뉴의 링크가 이동이 가능하지 않아 스크롤바를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이동가능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의 링크(Quick Link)의 사용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내비게이션의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Quick Link)는 스크롤바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셋째 문맥 내비게이션은 국내의 경우 너무 많은 링크와 새창으로 뜨는 링크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국외의 경우는 전역, 지역 내비게이션은 고정시키고 문맥 내비게이션 안에서 더 깊이 있는 항목(세부항목)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내

의 경우 다량의 링크 수와 새창을 자제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사이트 또한 너무 많은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관련사이트들 제공은 사이트들의 범주를 묶어 최상의 범주만을 홈페이지상에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 내비게이션의 메뉴의 수와 링크 유형은 가급적 적은 수를 제공해야 하며, 같은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볼 때 '다음', '이전'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창(additional browser window)의 사용을 자제하고, 콘텐츠 영역에서 활용하는 내비게이션(tertiary navigation)과 메인 페이지나 섹션 첫 페이지에서 콘텐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방식의 내비게이션(deeper link)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수의 관련사이트의 링크는 사이트들의 범주를 묶어 최상의 범주만을 홈페이지상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비게이션은 국내의 경우 사이트맵을 거의 모든 법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외의 경우는 사이트맵과 사이트색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사이트 가이드는 국외의 경우 제공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는 물리적 도서관 이용안내만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업무별 담당자 정보는 국내는 제공되지 않는 법학도서관이 많았으나, 국외의 경우는 사진, 이메일, 담당업무까지 상세히 제공하고 있었다. 검색영역은 국내의 경우는 도서검색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외의 경우는 도서검색과 사이트검

색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검색옵션 또한 국내의 경우는 서명을, 국외의 경우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옵션의 수는 4-5개로 제공하고 있었다. 검색옵션은 숫자보다 차별성과 다양성 있는 검색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FAQ·도움말은 이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피드백·Q&A는 이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재방문과 웹사이트에 대한 친근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FAQ·도움말, 피드백·Q&A 서비스제공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개인·회원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경우 홈페이지에 바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한 콘텐츠 영역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내비게이션의 사이트맵과 사이트색인은 웹사이트의 콘텐츠의 양에 따라 알맞게 제공해야 하며, 누락된 링크 없어야 하며 제공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지원 내비게이션의 물리적 도서관 이용안내와 사이트 가이드는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업무별 담당자 정보도 사진, 이메일, 담당업무까지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지원 내비게이션의 검색영역은 사이트검색과 도서검색이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FAQ·도움말, 피드백·Q&A 서비스를 전역 내비게이션의 위치에 제공하도록 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분석하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전역, 지역, 문맥, 지원 내비게이션 각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의 내비게이션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분석방법 및 객관적인 분석항목을 도출하여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문헌연구에 의해 도출된 분석항목을 가지고 내비게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97개 법과대학 중에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11개 웹사이트와 국외 2007 Law School Ranking 100의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법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웹사이트로 제한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학도서관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로는 법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정보자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 이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거나 브라우징할 수 있게 이용자

의 목적과 행동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희정, 2000,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콘텐츠 설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 쇼평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 노경미, 2004, 「웹사이트 유형별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임혜원, 2004, 「내비게이션디자인이 사용성과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조상래, 2001,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웹사이트 내비게이션 요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홍명자, 1998, 효율적인 법률도서관 봉사 를 위한 법률사서의 중요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1):181-205.
- Fleming, J, 2000, 「성공적인 웹사이트를 위한 웹 내비게이션」, 남상신 역, 서울: 한빛미디어.
- Bao, X. M, 2000, "Academic library home pages ; link location and database provis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3): 191-195.
- Cohen, Laura B., Julie M. Still, 1999, "A comparison of research university and

- two-year college library Websites ; content, functionality and for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0(3): 275-289.
- King, D, L, 1998, “Library home page design ; a comparison of page layout for front-ends to ARL library Websit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9(4): 457-465.
- Rosenfeld, L, and Morville, P, 2002,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2nd ed, Sebastapol, CA: O'Reilly.
- Stewart, M, 2004, “Academic health science library Websites navigation an analysis of forty-one Website and their navigation tool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4):412-420.
- Stover, M, Steven D, Zink, 1996, “World Wide Web home page design ; patterns and anomalies of higher education library home pages,” *Reference Services Review*, 24(3):7-20.